

영암농산물 클로렐라농법 평가회

기능성 농산물 생산 농법으로 전환 추진

기능성 농산물 생산 농법으로 전환 추진



영암군은 지난 24일 클로렐라농법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14개 작목에 대한 실증시험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실증시험에 참여한 농가 및 작목 담당자 등 3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평가회 중에는 목포대 원예과학과에서 수행한 무화과 등 8개 작물에 대한 생육조사 결과 보고와 전남대기업 LHAP에서 수행한 육용오리 사양시험 및 육질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에 이어, 시험에 참여한 농가의 의견청취 등의 평가시간을 가졌다

클로렐라 실증시험 1차년도 결과, 작목별로 결과는 다양하며 무화과 경도향상, 풋고추 수량향상 등 부분적인 효과가 검증되어 금후 2차년도에는 1차년도 결과평가를 토대로 한 작목 선정 및 실증설계 등을 거쳐 기능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실증시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의 기능성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를 통해 판매 및 유통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영암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ASC 인증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2021년까지 수산물 10% 이상 인증 획득 목표

완도군은 최근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획득을 희망하는 어가와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ASC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SC, ASC-MSD 인증은 신뢰받는 국제 인증인 만큼 심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류 준비 및 어장 개선작업 등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

이날 이춘계 조합원과 가공·유통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ASC 인증 규제?의 현황 설명, 인증 절차에 관한 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와 토론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백은영 팀장의 '전북산업 향후 전망', 부경대학교 김도훈 교수의 'ASC 인증 과정 및 향후 전망', (주)아쿠아프로 윤지현 소장의 'ASC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세계자연기금(WWF) 박두현 차장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프로그래밍 소개', (주)컨트럴 유니온 조영호 매니저의 'ASC, ASC-CoC 심사 과정' 등으로 진행됐다.

완도=김광수 기자

내년부터 영랑·현구문학제 전면 통합

강진군-동아일보 영랑시문학시상 공동운영

1930년대 한국시단을 이끌었던 강진 출신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에 대한 선양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확대·개편된다.

강진군은 지금까지 각각 추진됐던 영랑문학제와 현구문학제를 통합하고, 영랑시문학상을 동아일보사와 공동 운영하는 등 강진문학지원의 전국화를 위해 내년부터 다양한 문학콘텐츠를 개발

·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새해부터 본격 추진될 영랑·현구문학제 주요 콘텐츠는 영랑시문학상 시상, 현구문학상 제정·운영, 영랑·현구 전국백일장, 영랑·현구 전국시낭송대회 등이다. 영랑·현구문학제는 영랑시문학상을 주관한 동아일보사와 MOU 체결을 거쳐 개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영랑시문학상을 공동운영한 데에는 영랑의 향일 저항시 '복'(1946.12.10.) 등 3편이 발표된 점, 강진 3·1운동 기념탑 건립(1976. 5. 9) 당시 신문사가 관여한 사실에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2020. 4. 1) 핵심 사업으로 영랑시문학상을 선정해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1930년대 한국시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강진 출신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항상 아쉬움이 컸다"면서 "지난

세미나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문학지원의 전국화를 열망하는 군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문학상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영랑·현구문학제 통합운영으로 전국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강진군 주최로 열린 김영랑의 브랜드 격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영랑문학제의 한계성 노출, 영랑시문학상의 비합리적 운영, 김영랑 문학콘텐츠 전국화, 영랑·현구문학제 통합 운영 검토, 영랑 묘소 이장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안군, 전국 최초 1004택시 전용

교통카드 및 정산시스템 개발

신안군은 전국 지자체에서 국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신안군 사업명 : 1004택시)'의 이용자 편의 개선 및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국시·군·구 최초로 1004택시 전용 교통카드 및 정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동안 신안군은 현장에서 1004택시를 이용하는 주민과 택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지난 12.20, 신안군 1004택시 전

용 교통카드 및 정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004택시 이용대상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관내 모든 지역 택시를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한도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택시사업자는 수기정산을 통해 익일에 지급받던 운임요금을 카드 결제일로부터 2~3일 이내 입금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체육회 변해야..”



오동분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해남군체육회의 구시대적 행태는 여전히 개선될 수

○...최근 열린 2019 해남군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서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참석 인사에 대한 소개에 불만을 품고 또다른 후보가 지리를 뜨는가 하면 각종 경품도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

○...해남읍에 사는 체육인 김 모씨(65)는 “오늘 같은 날 상품은 누가 뭘 내 놓았으며, 수상자들도 체육인들이 충분히 귀찮아 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하는데 측근들 일색이었다”며 혀를 끌끌.

해남=서명환 기자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 나눔 냉장고’로 이웃과 따뜻한 온기 나뉘...



연말연시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온정이 가득한 겨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장흥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어르신 및 독거 남성들 등 복지 사각지대에 지리한 분들에게 밀반찬과 식료품 등을 나눠 주는 ‘사랑 나눔 냉장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 나눔 냉장고’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지역기관사회단체와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기탁 받은 식료품과 밀반찬을 장흥읍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100여 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로, 12월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발 디딜 틈 없이 상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중앙로타리클럽 여성 회원 5명이 돼지고기 주물럭 및 밀반찬 5종을, (주)와이푸드테크에서 음료수를, (주)바다채소에서 미역을,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에서 설렁탕, 전진청과에서 바나나를, 여성자원봉사협의회 이성숙 회장이 고추장을, 장흥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필품과 라면, 익명의 주민이 요구르트 등을 아낌없

이 후원했다.

이번에 밀반찬을 준비한 장흥중앙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뿌듯했고, 어르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반찬을 받아 가시면서 건네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가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기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위해 얼마든지 참여하겠다”고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백행갑 장흥읍장은 “연말에도 따뜻한 손길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20년도에도 사랑나눔 냉장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